

# 남원시, 일본 관광업계 초청 팸투어 '호응'

여행사·언론·인플루언서 등 1박 2일 일정 주요 관광지 방문·체험 콘텐츠 현장 취재 나서

남원시가 일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현장 중심 관광마케팅에 나서며 일본 여행업계와 미디어 관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남원시는 한국관광공사 오사카지사와 일본 간사이·중부권 여행사와 언론,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지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남원 주요관광지를 둘러보는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팸투어에는 일본 여행업계와 미디어, SNS 인플루언서 등 30여 명이 참여, 일본 대표 여행사인 한류교통사를 비롯해 아사히신문 미디어프로덕션, 오미우리신문사, 마이니치신문사, 주교TV 등 주요 언론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일본 내 관광상품 기획과 홍보에 영향력이 높은 인물들로, 남원 관광의 해외 확산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일본 현지 SNS 콘텐츠 제작자와 여행 인플루언서들은 남원의 관광자원과 체험 콘텐츠를 현장에서 취재하며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에 나섰다.

이번 팸투어는 청주공항 국제노선을 활용한 지방관광 활성화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참가자들은 관광투원과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서도역 등을 둘러보며 관광상품화 가능성을 점검했으며, 화인당 한복 체험을 통해 남원의 전통문화와 예술 관광 콘텐츠도 직접 체험했다.



남원시는 한국관광공사 오사카지사와 일본 간사이·중부권 여행사와 언론,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지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남원 주요관광지를 둘러보는 팸투어'를 진행했다.

또한 지역 대표 음식과 숙박시설도 함께 둘러보며 일본 관광객 대상 체류형 관광상품으로서의 경쟁력과 시장성을 살폈다.

남원시는 관광투원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 자원과 체험형 콘텐츠, 지역 미시 자원을 연계

해 일본 개별관광객(BIT)을 겨냥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지 미디어와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를 확대해 남원 관광자원의 해외 인지도 제고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군산 새로운 하모니 이끌 마에스트라

군산시립합창단, 조은혜 신임 상임지휘자 위촉

군산시립합창단이 뛰어난 실력과 소통 능력을 겸비한 조은혜(42) 신임 상임지휘자를 맞이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출발을 알렸다.

군산시는 군산시립합창단의 새로운 하모니를 이끌어갈 상임지휘자로 조은혜 지휘자를 지난 6월 1일자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전국의 유능한 지휘자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진행했으며,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2차 공인심사(정기연주회 객원지휘)와 3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하고 공정한 전형 절차를 통해 조 지휘자를 최종 선발했다.

조은혜 신임 지휘자는 2026년 6월 1일부터 2028년 5월 31일까지 2년간 군산시립합창단을 이끌게 된다.

조 지휘자는 목원대학교에서 합창지휘를 전공한 뒤 독일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국립음악학교에서 합창지휘 디플로마를 취득했으며, 하노버 국립음악대학원에서 합창지휘 최고연주자과정을 수료했다. 또한 대전시립합창단 전임지휘자와 아산청소년합창단 지휘자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현장 경험과 뛰어난 예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합창 음악계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왔다.

특히 조 지휘자는 유럽에서 쌓은 정통 클래식 음악에 대한 깊이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단원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군산시



립합창단원의 고유하고 세련된 음악을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합창단의 예술적 완성도를 더욱 높이는 한편,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기획공연과 찾아가는 음악회를 적극 확대해 시민들과 더욱 가까이 호흡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레퍼토리를 발굴해 군산시립합창단을 군산을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로 성장시켜 나갈 방침이다.

조은혜 지휘자는 "단원들과의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군산시립합창단만의 정교한 하모니를 만들어 가겠다"며 "정통 합창의 품격은 지키면서도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다양한 기획을 통해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군산의 문화적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 군산시립예술단, 광장에 ON 콘서트 성료

군산시립예술단이 최근, 군산예술의전당 야외 광장에서 개최한 '2026년 광장에 ON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공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일방향이 아닌 음악 감상을 넘어 지역 어린이들과 양방향으로 소통하고 함께 무대를 꾸미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예술의전당 광장에 돛자리를 펴고 편안하게 즐기는 야외 피크닉형 콘서트로 진행돼 공연장을 찾은 군산 시민들에게 달콤한 휴식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선사했다.

이명근 지휘자가 이끄는 시립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 단원 42명을 비롯해, 지난 오디션을 통해 뛰어난 기량으로 선발된 관내 초등학생 46명(바이올린 24명, 플루트 13명, 리코더 9명)이 이번 무대의 주인공으로 나섰다.

/군산=김만호 기자

## 국립민속국악원, 5일 국악의 날 기념 '동행' 개최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6월 5일 오후 7시, 예원당에서 2026 국악의 날 기념 한중 전통공연예술 교류공연 동행(同行)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국악의 날을 맞아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과 중국 산둥성 문화관광청 및 산둥성 소속 예술단체가 함께하는 교류 무대로, 국악원은 그동안 중국·몽골·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전통예술 단체와 꾸준히 교류해 왔으며, 이번 공연은 이러한 교류의 연장선에서 마련, '동행'에는 한국과 중국의 전통예술이 한 무대에서 만나 문화예술로 함께 걷는다는 의미를 담았다.

국악의 날은 세종대왕의 '여민락(與民樂)'이 조선 세종 29년 6월 5일 실록에 처음 기록된 날을 기념해 지정된 국가기념일로, 국악원은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여민락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악이 국민과 함께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예술로 나아가는 가치를 이번 공연을 통해 전하고자 한다.

공연에서는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의 △사계 절의 노래 △창극단의 판소리 △적벽가 중 적



벽대전 △연희부의 판굿을 비롯해 중국 산둥성 예술단체의 노래와 춤 △황하를 따라 바다를 만나다 △경극 패왕별희 △얼후의 디즈 백마 △중국 전통 곡예 △오페라 메들리 등이 펼쳐진다. 마지막은 양국 예술인이 함께하는 합창곡 △석별의 정으로 장식, 공연은 7세 이상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 예약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 전화(063-620-2329), 카카오톡 채널(국립민속국악원 친구추기)을 통해 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주말 상설행사

10월까지 연극공연·전래놀이 체험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 진행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오는 6월 6일부터 10월까지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주말상설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박물관을 방문하는 가족 단위 관람객과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고, 근대역사와 전통문화를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연극공연과 전래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인 연극공연은 박물관 3층 근대생활관에서 진행되며, 매일 6회 토요일 오후 2시와 오후 3시 두 차례 운영된다. 이번 공연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소작농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내 관람객들에게 당시 시대상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군산 근대문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이번 연극은 박물관 전시 공간과 연계



한 현장형 공연으로 진행돼 관람객들이 보다 생생하게 극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출된다. 또한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박물관 앞 광장에서는 매일 3회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래놀이 체험 행사가 열린다. 투호놀이, 공기놀이, 전래 놀이 등 다양한 전래놀이를 체험을 통해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들이 우리 고유의 놀이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